

◀기쁜 우리 날들▶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하여 김현태

어릴 땐 그랬지요.
나이 든다는 것이 높은 벼슬인 줄 알았지요. 멋진 양복 입고 때론 동네 예쁜 누나들을 끼고 활보하는 삼촌처럼 어른이 된다는 건 부러웠지요

그래서 그랬지요
매년 새해 아침이 밝아오면 떡국을 무려 네 그릇을 비우며 하루 빨리 어른이 되길 기원했지요

그 덕에 언제나 화장실에 쪼그려 앉았고 그렇게 세월은 화장실에서 익어갔지요
배설하는 동안, 코밑 수영은 굵어지고 세월은 내 키보다 더 자라나
이제는 사는 것이 괜히 서러운 나이가 되니 모든 것이 아슬아슬해 보이네요

목련꽃의 화려함을 즐기기 전에
괜히 곧 지고 말 초라한 모습이 눈물겨워 바라 볼 수조차 없는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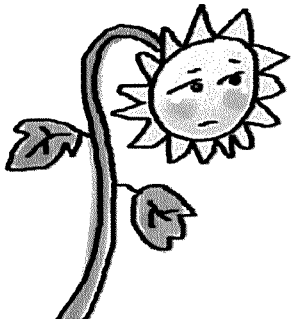
백사장에 남긴 발자국 앞에서 한 걸음 더 내딛지 못하고
자꾸 등 뒤를 바라보고마는,

첫눈이 내리는 계절이 오면 누군가가 시계탑 앞에서 기다려 줄 것 같은
소설 같은 낭만을 아직도 기대하는,

남에게 쉽게 나이를 물어보면서 정작 누군가가 내게 물으면
차마 말 못하고 그저 부끄러워 절뚝이는 내 무거운 나이,

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게 서러워 오는 새해는 떡국을 먹지 않았지요
김이 모락모락 나는 내 떡국을
어린 아들녀석이 짹짹 비우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지요

내가 늙어 너는 자라고
내가 늙는 사이 그대는 먼저 눈사람이 되었구나, 하고 생각했지요.



◀그림 말씀▶ 해바라기의 슬픔...

태양을 바라보던 해바라기!
머리가 커질수록 무거운 고개 들 수 없어
점점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.

튼게 많아진 우리의 머리...
주님 바라보기가 어렵지 않은지요...

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	밀줄치며 읽는 성경! 보혈의 능력 (히4:12-13)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 섬김과 봉사 *익명성 - 명예
제10권 6호	기초성경공부이수, 정장으로 예배, 남 이야기 금지	2008년 2월 10일
☎ 369-5077. Howe St. City(Ak Girls Grammar School Hall)		www.calvary.org.nz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'척'하지 말아라



바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.
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여유 있게 처리할 능력을
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.

피곤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.
하나님께서 이미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
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.

힘든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.
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므로 당신에게 이미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.

믿음이 없는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산을 옮길 만
한 겨자씨 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.

연약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연약함을 실
제로 담당시키셨고, 성령을 통해 이미 당신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.

죄인인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.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
시키셨고, 성령 안에서 믿음을 통한 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.

혼자인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.
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.

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.
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당신과 같은 역경을 거쳤고, 결국 모진 세파를 거치면서
도 그들의 꿈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. 그 꿈을 이루신 성령이 당신 안에서 지
금도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.

◀말씀 따라 행하기▶

하나님의 마음을
상하게 하는 것으로
저의 마음도 상하게 하소서

◀인품 따라 행하기▶

자신을 불행한 존재라고
생각하는 사람은
아직도
더 불행해질 여지가 남아있다.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하나님 생각 하는 연주 찬양

묵도와 참회의 기도 Pray & Confession	Calvary(성가대)	다 같이
*찬 송 Hymn	32장	다 같이
*신 앙 고 백 Apostle's Creed	사 도 신 경	다 같이
찬 송 Hymn	316장	다 같이
기 도 Pray		정관영 안수집사
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	마가복음 5:21-43	인 도 자
성가대 찬양 Choir		나무십자가 성가대
설 교 Sermon	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(3) 진짜 믿음	김성국 목사
찬 송 Hymn	394장	다 같이
헌 금 기 도 Offering Pray		인 도 자
교 회 소 식 Welcome & Announcements		인 도 자
응 답 송 Response Song	여기에 모인 우리	다 같이
축 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지난주일 성전건축헌금 \$ 5,987	총액:\$ 423,829.74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갈보리 성경 100독: 3 독 고대아 권사(1,3독). 1독 후 20일만에 다시 한번 완독하신 권사님, 당신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.

◆2월 예배위원◆

◆2월의 교회력◆

일자	기 도	주차안내	안 내
3	임혜자	서재오	안내부&권사
10	정관영	최현철	새교우: 백제성 권사
17	정희자	항존직	
24	조재근		

	주일 & 예배	모 임
3	사순절시작(6)	구역예배(8)
10		
17		구역예배(22)
24	이삭줍기헌금	

『2008 신앙생활』 밀줄치며 읽는 성경! 보혈의 능력 1년중 성경 1번 읽기 은혜로운 구절 밀줄치기 갈보리 성경 100독 하기	『교 회 등 록』 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 *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.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
주일예배.아동, 학생:오후 1시	수요예배: 7:30 pm
새벽기도회: 금 5:50	청년부:수요 7:00 pm

올 해 교회표어는 “밀줄치며 읽는 성경! 보혈의 능력” 입니다.

- (1)성경 1번 완독하기 (2)성경읽으며 은혜로운 구절에 밀줄치기
(3)갈보리 성경100독 하기.

1.교우소식

<등록> 안준희, 신현연.재영.재은.재인:(10구역.디모데.마리아)

☎ 524-2831 16/68 Remuera Rd. remuera

2.사순절(Lent) 첫째주일입니다

*하루하루가 우리를 위한 위로의 발걸음이셨습니다

3.『갈보리 성경100독』

*지금 어느 부분을 읽고 계십니까? 차 안에 갖고 다니던 성경을 펼쳐 읽던 중 에 뜻하지 않은 은혜의 말씀이 다가 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.

4.남여선교회 총회 모임:예배 후 모이겠습니다(의장:2007년 회장)

*결혼부부 부터 -45세 (남:디모데. 여:마리아)

*46세 부터 - 55세 (남:베드로 여:루디아)

*56세 이상 (남:바울 여:한나)

5.담당부장 모임(예고):다음주일 예배 후 모입니다

*현석호.최득수.오지영.박정자.백제성.조재근.정관영.박수현.최현철.김반석.
노은숙.방영아.박일영,이광희.이태한

6.성전건축을 위한 남성 토요일기도모임 2기: 네 번째 모임

<일시> 16일 토요일 저녁 7:30분. 사무실

7.『성전건축을 위한 화요일기도모임 3기』 기도자원교우 모임

<일시> 2월 26일(화)-3월25일(화) 매주 화요일. 저녁 7:30분

<기도회 인도 & 참가신청> 노은숙 권사

8.수요예배 <수요일 저녁 7:30분>

*수요일 저녁, 일찍 저녁 들고 교회와서 성경 무릎에 펼쳐 말씀 들여다 보는
여름밤이 되어 보십시오.

◀한 줄로도 긴 생각▶

산에 갔다가 2,500년의 제 수명 중

이제 1,000년이 된 채 덩덩이 서 있는 Kauri 나무를
50 살 된 내가 바라봅니다.

김성국